

2017 학년도 논문실록 시리즈

초절기교

超絶技巧

4 É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고려대학교 편

이유섭(연세대학교 신학 4)지음

고려대학교 문제는 크게 유형 I, 유형 I', 유형 II로 나뉜다.

2015학년도부터 신유형이 도입된 이후, 각 년도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자.

2015 수시 인문 A	유형 1
2015 수시 인문 B	유형 2
2016 모의고사	유형 1'
2016 수시	유형 1

유형 1이 가장 많이 나오고, 특히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유형 2와 유형 1'도 같이 다룰 것인데, 우선 고려대학교 문제의 기본적인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고려대학교 문제들은 2014학년도까지 다음과 같은 틀을 유지해 왔다.

X(1) 를 be based on 하여 Y(2) Z(3) 를 비교(분석) 한 후,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현행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부분이 탈락하고, 앞부분을 뒤집어 놓은 형태이다. 어떻게 그러하냐고? 예시 문제를 한 번 보자.

I. 평판에 관한 (1)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2013학년도 문제이다. 이것을 요즘의 유형으로 바꾸면,

1,2를 활용하여 '평판' 에 관해 논술하시오. 가 될 것이다. 이 때 Y제시문(기존의 2번 제시문)이 제시문 1이 되고, Z제시문(기존의 3번 제시문)이 제시문 2가 된다. 이들을 활용하여 X제시문(기존의 1번 제시문)을 답안으로 써내라는 것이 고려대 문제의 기본 골자이다.

고려대 논술의 답안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형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1. 제시문의 fact 정리
2. Fact 에 대한 비판적 사유
3. 1,2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 제시

이 때, 2와 3의 경우는 '해결책 제시문(혹은 지배자 제시문이라고도 한다. 2015 A와 2016 수시에 모두 있었다.)' 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그냥 간략하게만 구조를 탐색해 보도록 하자. 먼저, 2를 활용하여 평판에 대해 논술해 보자. 2는 기존의 제시문 3이다.

퐁간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퐁간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퐁간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퐁간이를 낳고 퐁간이를 만들고 퐁간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퐁간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퐁간이 살다 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간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간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간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

똥간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일천 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간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흥터를 안겨 주었고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강패로 우뚝 서는 바탕이 되었다. 은관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합기도 삼 단, 유도 사 단, 태권도 삼 단의 면장(免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조십단’이었다.

나쁘게 발음하면 그대로 욕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은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없는 데서도 혹시 신출귀몰하는 그들 형제가 주변에 없나 살피고 나서 ‘똥간이가 조십단하고 술 먹다가 전당포 주인을 깔고 앉은 사연’ 등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가 은척읍 사람들에게 재밌거리가 된 것은 그때 은척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 돈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으며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은관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뉴스였고 연재소설이자 연속극이며 스포츠였고, 무엇보다도 신화였다.

똥간은 성장함에 따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개망나니짓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열다섯 살 때부터 외상 안 주는 집 깨부수는 일은 다반사요, 외상으로 밥 먹고 외상으로 반찬 먹고 외상으로 차 마시고 게트립하고 외상으로 만화 보고 외상으로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팬 뒤 외상으로 약을 사주었다. (중략) 소문뿐, 누가 사실을 확인해 보라.

1. fact	평범한 사람 조동관 형제가 헛소문에 의해 불세출의 강패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됨.
2. 비판적 사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소문만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평판의 역기능에 해당함.
3. 해결책	따라서 평판을 볼 때에는 그 실질의 반영을 확인하고 신뢰도의 편차를 고려해야 함.

이것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느냐고? 바로 제시문 1, 즉 우리가 답으로 써야 하는 그곳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평판이 그 대상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관련한 사례로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이 팔린 소설이 반드시 좋은 소설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판매 부수에 의해 그 소설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한다.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문학평론가들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소설의 판매고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다.

평판은 그 신뢰도의 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평판은 사실에 근거한 반면, 어떤 평판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자 후기(後記)가 발휘하는 효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판이 개인의 의사 결정에 폭넓고 깊숙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평판의 신뢰도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문제의 기본 틀을 알았으므로,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들을 합격자 답안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며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에 대비해 보자.

I. 2015학년도 인문 A (유형 I)

‘해결책(지배자)’제시문이란, 비판적 사유에 의해 비판을 받는 fact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비판적 사유의 원천이 되는 문제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제시문이다. 이 유형에서 해결책 제시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해결책 제시문은 제시문 3번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매해 그래 왔으니 제시문 3번부터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 때 제시문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제시문이 될 것이다. 아까 그 억울했던 동관 형제처럼 말이다.

<문제 1> 제시문 1,2,3을 활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

제시문 1

바나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며, 총생산량의 15퍼센트 정도는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바나나를 수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상하기 쉬운 과일의 특성상 신속한 작업이 요구된다. 수확 후 한 달 이내에 소비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바나나 공급망은 대규모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즉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이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바나나 포장 공장, 바나나 수출용 선박 회사 등을 지배한다. 세계 바나나 산업은 집중도가 매우 높아, 초국적 기업 3개사가 세계 거래량의 55~60퍼센트를 차지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대형 할인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바나나는 가격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북반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상점에서 매우 잘 팔린다. 수입업체가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나나를 소매상에게 공급한다면, 그 업체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가격 인하 방식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 결과 바나나의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해왔다.

생산자의 몫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바나나 생산은 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에서 에콰도르·브라질·카메룬과 같이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국가로 이동하였다. 에콰도르는 바나나 가격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40~60퍼센트 낮춤으로써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이 되었다. 많은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노동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하거나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낮추고 있다. 5천 개가 넘는 에콰도르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농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초국적 기업의 간섭이 늘어남으로써 그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초국적 기업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저가로 바나나를 사들이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아래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러서 바나나의 가격은 점점 더 초국적 기업들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락하는 바나나 가격은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농장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정부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에콰도르 바나나 플랜테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임금만으로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어린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나이는 10~11세 정도이다. 보통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농약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제시문 2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되듯이, 지금 농업의 진흥에 힘쓰려 한다면 먼저 농사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식년시가 있는 해에 크고 작은 과거시험의 응시자가 십만 명도 넘습니다. 이들 십만 명뿐 아니라 이들의 부자와 형제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들을 일꾼으로 부립니다. 같은 백성이지만 부리고 부려지는 관계가 되면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집니다.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지면 날이 갈수록 농업은 경시되고 과거는 중시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을 자부하는 이들은 모두 과거장에 달려가니 농사짓는 일은 어리석은 자나 머슴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인과 딸자식들을 들로 내몰아 일하게 하니 소먹이고 밭갈이하 는 일은 그 절반이 아낙네의 몫이 되고, 풀 베고 방아 찧는 일은 전부 부인네에게 맡겨집니다. 그렇게 되니 변두리의 작은 고을에서 다듬이 소리가 거의 끊어지고 그 결과 온 나라에는 몸을 가릴 옷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 넘기며 옛날부터 그래왔거니 여깁니다.

그러니 어찌 선비들이 농업에 해가 되기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농업을 심각하게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선비의 수가 백성의 절반을 넘긴 지 백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날로 중시되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선비들을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날로 경시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어째서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조정에서 날마다 천 장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고을의 관리들이 날마다 만 마디 말로 다그친다 해도 한 바가지 물로 수레 가득한 장작나무의 불을 끄는 격인지라 노력해 봤자 헛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제시문 3(해결책 제시문)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사심 없는 구경꾼만큼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굳건한 기초에 의해 지지된다. 사회적 감정은 주변의 타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바람인데, 그 감정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미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서 굳이 인위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강화된다. 사회 상태는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또한 익숙하다. 인간은 어떤 예외적 상황에 처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을 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야만 상태가 벗어난 고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류의 사회적 결합은 견고해진다. 이제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사회적인 유대가 강화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복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더욱 감정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을 일종의 본능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물리적 조건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타인들도 그런 감정을 갖도록 힘껏 촉구할 것이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 정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일체감이 완벽해진다면, 타인을 배제한 채 자기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갈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 앞서의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는 제시문 3, 즉 해결책 제시문의 지배를 받으므로 해결책 제시문의 내용을 철저히 요약할 필요가 있다. 요약 문제는 2012학년도를 마지막으로 고려대에서 사라졌는데, 사실상 다시 부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해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1,2에 대해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고, 제시문 1,2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 ✓ 사회적 감정 : 주변의 타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바람
- ✓ 인간의 본성 속에서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
- ✓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에서 존재하기 어려움
- ✓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음.
- ✓ 사회적인 유대가 강화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복리에 대해 더욱 관심.
- ✓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 보임.

일단 이들을 활용한 답안을 보자. 제시문 1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강자인 초국적 기업들이 약자인 노동자들을 자본을 무기로 착취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을 사회적 감정에 반한다고 비판적 사유를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감정을 발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아래는 합격자 답안의 일부를 발췌하여 운문한 것이다.

제시문 1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생산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몫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본을 무기로 생산자들이 임금,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없게 한다.(fact) 즉, 3에 의하면, 제재 수단이나 법규를 갖추지 않은 사회는 문명이 덜 발전된 사회로 사회적 감정이 덜 발현된 사회라고 해석 가능하다.(비판적 사유)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재장치를 이용하여 인간 사회의 정신적인 문명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어 사회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해결책)**

- 김도영, 고려대 행정학과

이 합격자의 경우 '제재 수단이나 법규' 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제시문 2에 나온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시문 1과 2를 모두 다 읽고 나서 한번 이 합격자처럼 답을 써보도록 하자. 이 때 두 가지 답 쓰기의 구조가 다 가능한데, 다음의 두 가지이다.